2026년 9월 2일 울산 2026 – 40호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한국은행 부산·울산·경남본부, 「전환기 동남권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와 대응과제」를 주제로 공동세미나 개최

□ 한국은행 부산·울산·경남본부는 「**전환기 동남권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와 대응과제: 기후·노동·산업을 중심으로**」를 주제로 9월 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(BPEX)에서 공동세미나*를 개최

*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개회사,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

□ 이번 세미나에서는 탄소규제 강화, 인구구조 변화, 산업재편 등 동남권 지역경제가 직면한 주요 구조 변화와 대응 과제를 부산·울산·경남의 지역별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

- ㅇ 첫 번째 발표에서는 남현정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탄소규제 강화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,
- ㅇ 두 번째 발표에서는 안군원 숭실대학교 교수가 경남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,
- ㅇ 세 번째 발표에서는 김현익 한국은행 울산본부 과장이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석유화학 산업재편이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

□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동현 부산연구원 부원장(좌장)과 토론자들이 동남권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

- 자세한 내용은 "붙 임" 참조 -

(지역경제 공동세미나 관련 사진 별도 송부 예정)

붙 임: 1. 「2026년 한국은행 부산·울산·경남본부 공동세미나」 개요
2. 주요 발표 내용

문의처 : 부산기획금융팀 김태훈 과장
Tel : (051) 240-3802 Fax : (051) 240-3811 E-mail : busan@bok.or.kr
울산기획조사팀 민동길 과장
Tel : (052) 259-7425 Fax : (052) 259-7491 E-mail : ulsaneco@bok.or.kr
경남기획조사팀 이동훈 과장
Tel : (055) 260-5134 Fax : (055) 260-5099 E-mail : gyeongnam@bok.or.kr

"한국은행의 보도자료는 인터넷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"
(http://www.bok.or.kr ⇒ 좌측상단 지역본부 ⇒ 부산본부 / 울산본부 / 경남본부)

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울산본부 한국은행 경남본부

(붙임 1)

「2026년 한국은행 부산·울산·경남본부 공동세미나」 개요

□ 주제: 전환기 동남권 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와 대응과제
- 기후·노동·산업을 중심으로

□ 일시: 2026.9.2(수) 14:00 ~ 16:30

□ 장소: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(BPEX) 컨퍼런스홀 B·C

□ 세미나 일정

시 간	순 서
14:00~14:10	■ 개회사: 이지호 한국은행 부총재보 ■ 축 사: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
14:10~14:15	■ 기념 촬영
14:15~14:35	■ 주제 발표 Ⅰ (남현정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교수) - 탄소규제 강화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: 해양산업을 중심으로
14:35~14:55	■ 주제 발표 Ⅱ (안군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) - 경상남도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
14:55~15:15	■ 주제 발표 Ⅲ (김현익 한국은행 울산본부 과장) - 석유화학 산업재편이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: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
15:20~16:30	■ 종합 토론 좌장: 이동현 부산연구원 부원장 토론자: 1.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 2. 김혜진 국립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. 이준영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. 강다현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과장
16:30	■ 폐회

(붙임 2)

발표1: 탄소규제 강화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: 해양산업을 중심으로

- 남현정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부 부교수* -

* 공동연구: 이송희 부산본부 과장

□ **(검토배경)** 국제사회의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부산의 주력산업인 해양산업의 탈탄소 전환 압력이 커지고 있어, 이러한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짐

ㅇ 탄소규제가 단순히 비용 상승 요인이 아니라 부산지역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

□ **(규제현황)** IMO(국제해사기구)는 2050년 넷제로(온실가스 순배출 제로)를 목표로 국제항해 선박의 탄소배출 기술·운항 효율을 규제하고 있으며, EU는 EU 항만 기항 선박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(ETS) 적용을 확대

□ **(분석결과)** 해양산업 전반의 탈탄소화 요구는 조선업, 항만업, 해운업의 구조적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

ㅇ 조선업 :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, 탄소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할 경우 약 10.7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투자가 일어나고 이는 부산지역에 약 1.6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

ㅇ 항만업 : 항만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기준이 '탈탄소화 지원 역량'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

ㅇ 해운업 :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 최소화를 위해 해운사들은 북극항로 등 대체항로의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운항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

□ **(시사점)** 탈탄소 전환을 부산의 조선·항만·해운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

ㅇ 친환경 선박 투자의 낙수효과를 부산지역이 흡수하기 위해 울산·경남 지역의 주요 조선소와 연계한 기자재 공급망을 고도화

ㅇ 부산항이 탈탄소 선박의 항만 이용을 지원하는 '친환경 종합 서비스 허브'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인프라를 확충

ㅇ 부산지역 해운사들이 강화된 환경 기준에 대응하고 탄소배출권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체계를 구축

발표2: 경남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안군원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* -

* 공동연구: 구자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, 김민경 성신여대 교수, 이은진 경남본부 조사역

□ **(연구배경)** 경남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제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도 빠르게 늘고 있어, 외국인력 확대가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

- ㅇ 이를 위해 경남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배경과 권역별·산업별 분포를 살펴보고, 외국인력 유입이 지역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외국인력 배정·활용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

□ **(노동시장 현황)** 경남은 제조업 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, 외국인력 의존도도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

- ㅇ 제조업 피보험자 중 청년층(34세 이하) 비중은 2024년 23.6%로 전국 평균(28.4%)을 하회하는 반면, 50세 이상 비중은 37.1%로 전국 평균(32.2%)을 상회

- ㅇ 경남의 2024년 인구 1천 명당 외국인 근로자는 16.8명으로 전국 시도 중 세 번째로 많았으며, 특히 제조업·농림어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거제·밀양 등 일부 지역에서 크게 증가

□ **(실증분석)** 패널 회귀분석 결과, 외국인력 증가는 중단기적으로 총고용과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, 장기적으로는 임금 하락 없이 지역의 총고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ㅇ 외국인력이 10% 증가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고용은 약 1.2% 증가

- ㅇ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 고용(고졸 미만)이 중단기에 한해 감소한 반면 중학력 고용(고졸)은 중단기와 장기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, 산업별로는 제조·건설업뿐 아니라 도소매 등 일부 서비스업도 고용 증가가 나타남

□ **(시사점)** 경남은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고 지역별·산업별 인력수요의 차이도 큰 만큼, 상이한 인력수요에 맞춰 외국인력을 배정·활용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필요

- ㅇ 시군별 산업구조와 인력수급 여건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체계를 정교화하고, 장기체류 가능 인력의 지역 내 근속과 정착을 지원

- ㅇ 외국인력 유입이 많은 지역·업종을 중심으로 취업취약계층의 직업훈련을 지원하고, 중소 제조기업에는 노무관리·산업안전 등을 통합 지원

발표3: 석유화학 산업재편이 울산경제에 미치는 영향: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

- 김현익 한국은행 울산본부 과장, 조세영 조사역, 김용인 인턴 -

□ **(검토배경)**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재편을 추진 중

ㅇ 석유화학 산업이 울산경제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, 산업재편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

□ **(분석방법)** 타 지역(서산, 여수)에서의 석유화학 산업재편 추진 상황을 바탕으로 울산지역 내 산업재편 시나리오를 설정*하고, 산업재편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을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**

* 울산지역 석유화학 산업재편 시나리오를 지역 내 NCC(Naphtha Cracking Center, 나프타분해시설) 규모의 10%(최소 감축), 18%(중간 감축), 25%(최대 감축)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정

**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(2020)의 투입-산출 구조와 Miller and Blair(2009)의 생산제약 모형을 활용

□ **(분석결과)** 울산 석유화학 산업의 생산 유발효과(전방·후방 연쇄효과)는 지역 내 타 산업 대비, 타 지역 석유화학 산업 대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

지역 내 NCC 규모 축소 시, 생산액·부가가치·취업자수는 각각 1.2%, 0.8%, 0.4% 수준 감소(최소 감축 시나리오 기준)하는 것으로 분석됨

ㅇ 산업재편에 따른 서비스업 생산 감소액(-1,130억원)은 제조업(-3,300억원, 석유화학 제외)의 35%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, 서비스업 취업자수 감소분(-1,040명)도 전체 감소분(-2,200명)의 47%를 차지

□ **(시사점)** 울산지역 석유화학 산업재편은 지역 내 ①석유화학 산업의 특징*과 ②기업간 이해관계 충돌을 고려하여 NCC 감축보다는 고부가가치 제품 연구개발·생산설비 투자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

* 타 지역 대비 울산의 NCC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고, 지역산업연관표 분석에 따르면 석유화학-전·후방 산업 간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

ㅇ 지역 내 주력사업을 비석유화학까지 포함한 전체 화학산업으로 확장하고, 기업의 사업 부문을 석유화학의 전·후방 산업으로 확대하는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검토

ㅇ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실업자가 서비스업 내 재취업이 어려울 가능성을 감안하여, 제조업 등 타 산업에서의 구직활동을 위한 직무교육 제공, 정책금융 지원을 고려